

# 율곡과 다산의 추천도서

대학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한달 남짓된 신입생들이라면 이즈음 교수나 선배들로부터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있을 것이다. 학과 공부에 필수적인 책이나 인문적 교양의 습득을 위한 고전적 명저들을 자주 추천받을 텐데, 이같은 '추천'과 '권유'를 체계화한 것이 이른바 '필독도서목록'이다.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가 고전읽기 활성화방안의 하나로 발표해 최근 큰 반향을 일으켰던 '동서양 고전 200선'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만한데, 그러나 우리의 경우, 누구나 수궁할만큼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는 필독서 목록은 아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에 비해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늘다 보니 어떤 특정한 책의 선택과 배제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사정이 달랐던 것 같다. 훨씬 단순하고 명료하다.

가령, 이율곡은 그의 『擊蒙要訣』에서 가장 먼저 「小學」을 읽도록 권유하고, 이어서 「大學」 「論語」 「孟子」 「中庸」을 차례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詩經」 「禮經」 「易經」 「春秋」 등의 「五書」를 "골고루 자세하게 읽어서 그 사리를 깨달아 의리가 날로 밝아지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율곡은 "그렇게 한 뒤에 다시 송나라 선현이 저술한 「近思錄」 「家禮」 「二程全書」 「朱子大全」 「語類」 등의 글과 또 그밖의 다른 性理의 학설도 마땅히 정밀하게 읽어 의리가 항상 내 마음 속에 침투되어 와서 한 시간도 끊어짐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한 연후에도 남는 힘이 있으면 史書를 읽어서 고금의 역사에 통하고 일의 변하는 이치에 통달해서 자신의 식견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권유한다. 반면 「異端은

**율곡과 다산은 經書를 먼저 읽은 다음 史書로 나아가야 한다는 독서단계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독서의 방법론에서도 똑같이 精讀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율곡이 다산에 비해 보다 엄격한 편인데, 예컨대 그는 "잡되고 바르지 못한 이단의 글은 잠깐사이라도 보아서는 안된다"고 단언하고 있을 정도이다.**

로서 잡되고 바르지 못한 글은 잠깐 사이라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여필독서 추천에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다산의 경우도 율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속에서 다산은 "반드시 처음에는 經學 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實學에 마음을 두고 옛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고 부언하고 있는 점이다. 다산은 또한 "학문이 이미 몸에 배어들고 넉넉해지면 특별히 순서에 따른 독서의 단계를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여 율곡에 비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책을 읽는 태도나 방법론에서는 율곡과 다

산이 모두 精讀을 권한다. 율곡은 "입으로만 글을 읽을 뿐 자기 마음으로 이를 본받지 않고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있을 뿐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대저 글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반듯하게 앉아서 공손히 책을 펴놓고 마음을 오롯하게. 갖고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그는 "한 가지 책을 익히 읽어서 그 의리와 뜻을 모두 깨달아 통달하고 의심이 없어 된 연후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어야지 여러가지 책을 탐내고 이것저것을 얻으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섭렵해서는 안된다"는 극단의 엄정주의를 내비치기도 한다.

다산의 경우도 "그냥 읽어내리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천번 백번을 읽어도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역시 정독을 강조한다. "무릇 독서할 때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하며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는 것이 다산의 독서관이다.

다독의 필요가 절대적일만큼 책의 홍수 속에 휩쓸려 있는 요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소 비현실적인 듯이 보이지만, 율곡과 다산의 독서관이 정보의 취득이나 오락의 추구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기도 하다. 그들에게 있어 책과 책임기는, 도와 이치를 담은 그릇이자 그 도와 이치를 궁극에까지 탐구해 들어가는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출판저널

등록 제145호 / 1994년 3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홍일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집/바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5,000원

###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스꽝스런 본질/최시립 옮김/4,000원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정한 인간 성찰/테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5,000원

###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질러 지음/김정우 옮김/3,800원

###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워 등 중국의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 외 지음/이효림 엮고 옮김/3,500원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 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푸나의 추억

라즈니쉬의 첫 한국인 제자였던 홍신자의 인도에서의 구도 체험/홍신자 지음/5,000원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톰킨스 외 지음/황정민 옮김/7,500원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아트 T. 스펀딩/정정영 옮김/7,000원

###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소설로 풍자한 인류 진화사. 200만 년을 단숨에, 웃으며 읽는다/로이 루이스 지음/김석희 옮김/4,800원

###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추장, 용사, 아낙네들의 말을 통해서 읽는 삶의 의미/시애틀 추장 지음/류시화 옮김/4,500원

### 사람을 살리는 단식

단식으로 암을 치료한다—이론·방법·입상을 망라한 단식 실천 지침서/장두석 편저/6,500원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 지음/김종오 옮김/6,500원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생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6,500원

### 이집트의 신비

거대 유적의 비밀과 정신적 유산의 신비를 깨는 영적인 이집트 탐험/폴 브러턴 지음/이규형 옮김/6,500원

###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4,500원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배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12,000원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 문화/권태훈 지음/12,000원

###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감수/정제승 편저/6,500원